

♥ 암소 8마리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로 부터 약간의 비웃음을 사는 사람이기도 했다. 자니 링고는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 대가를 치르는 풍습이 있다. 보통 예쁘게 생긴 여자라면 암소 4마리 정도를 준다. 그리고 조금 매력이 떨어지면 암소 3마리를 준다. 물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힘든 여자라면 암소 1마리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그리 예쁜 여자가 아니었다. 태평양에서는 주로 뚱뚱한 여자가 인기있는데, 사리타는 마른데다 어깨가 구부정한 빈약한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암소 8마리를 주었으니 주변의 비웃음을 살만했다.

선교사가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했다. 선교사는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놀랐다. 소문과는 달리 너무 나도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턱이 아름다웠고, 빛나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는 당당한 걸음의 멋진 여인이었다. 선교사는 자니 링고에게 물었다. "아내의 모습이 왜 소문과 이토록 다르죠?" 자니 링고는 말했다.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다고 말하면, 다른 여자는 자기는 암소 5마리에 시집왔다고 자랑합니다. 암소 1마리에 시집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내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한 것입니다." 자니 링고는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지닌 아내를 원했다. 그래서 장에게 암소 8마리를 준 것이다. 그랬더니 부족해 보이던 아내 사리타가 암소 8마리에 걸맞는 멋진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특히 자기를 가치있게 여기고, 기대하는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암소 4마리쯤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를 암소 2마리 정도의 수준으로 대해 주면 분노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준다. 암소 4마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암소 6마리의 존재로 대우해 주면 그는 감격한다. 그리고 그 기대와 평가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가치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스스로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되새겨 볼 이야기이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의명성-명예
제 9권 2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7월1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十 고운 가루 같은 신앙

나는 덩어리를 싫어한다. 커피를 좋아하지만, 오래동안 먹지 않아 덩어리로 나오는 커피는 싫어한다. 뭐든지 오래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덩어리가 된다.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굳어졌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성도는 뭉쳐있으면 썩는다. 믿는 사람끼리 너무 뭉쳐있으면 서로 공격하고 무너뜨린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인정받기 힘들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는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상처주고, 서로 상처받고 괴로워한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 빛과 빛끼리 모여 있으면 영향력이 서로 상쇄되어 버린다. 미숙해 보이는 사람도 불신자 속에 들어가면 능력을 발휘한다. 불신 세계 속에 뛰어들어 거기서 뭉부림치는 것이 성도이다.

구약의 제사 중 소제가 있다. 소제는 곡물을 고운가루로 드리는 제사이다. 오르티스는 성도는 으깬 감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으깨진다는 것은 고운 가루가 된다는 뜻이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깨진다는 뜻이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으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부서진 모습, 산산조각이 난 모습, 깨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 깨진 모습이 되면, 자신의 형체는 사라진다. 그러나 영향력은 그대로 남는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운가루, 깨진 모습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 영적 분쇄기로 부수라. 혈기, 질투, 시기, 교만, 조급, 인색, 이기심을 깨라. 내 자아가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 고집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절구애 넣고 빻는 과정을 밟는다. 언제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이다. 성도는 가루로 존재하지,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용각산 광고가 있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왜? 고운 가루이기 때문이다.

소리없이 일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Apostle's Creed		
*찬 송	13 장	다 같 이
Hymn		
*성 시 교 독	65 (감사절 2)	다 같 이
Response Reading		
교 회 소 식		인 도 자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98 장	다 같 이
Hymn		
기 도		고성일 안수집사
Pray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 전서 5:18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성가대 찬양		나무십자가 성가대
Choir		
설 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대한 목사
Sermon		
찬 송	306 장	다 같 이
Hymn		
현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Response Song		
축 도		이 대한 목사
Benediction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625	총액: \$ 318,414.70
---------------------	-------------------

◆7월 예배위원◆

◆7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응 답 송	안 내
01	고성일		본당:권사
08	권용일		
15	김교섭		현관 : 박일영 최재학
22	김반석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9	김순자		윤주야 장유진

일자	행 사	예배와 모임
1	맥추감사주일	현신예배
8		구역예배
15	전교인체육대회	창립기념예배
22		남녀선교회월례회
29		

『교 회 생 활』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 첫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 합니다.
- <예고>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회 개최
 *일시 : 2007년 7월 15일 오후 12시- 5시
 *장소 : 학교 체육관 (현재 학생부 예배장소)
 *주관 : 제4 남선교회 (행운권 추첨을 위한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문의 박영태집사 528-0866)
- 제3 남선교회 현신예배
 *일시 : 2007년 7월 4일(수) 7:30 pm
- 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준비위원 모임이 예배후 2 Dress Room 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는 구역예배 주간입니다. 구역 형편에 알맞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 제5 남선교회 골프모임안내
 *일시 : 2007년 7월3일 (화) 11:30
 *장소 : 마누카우 골프장
 *문의 : 박상옥, 백제성 집사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와 가운데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 시인들 ▶

바다가 보이는 교실

- 정일근 -

참 맑아라

겨우 제이름밖에 쓸줄 모르는
 열이, 열이가 착하게 닦아 놓은
 유리창 한 장

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 성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가을 바다 한 장

열이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아아,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지울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있기에 지금 힘들거나
 어려움에 막히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새로움과 순결함을 일깨워 주는
 마음의 호수입니다.
 어린아이가 닦아놓은 유리창으로
 보이는 바다처럼 우리가 손 대고
 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맑게
 보여 지게 할수 있을런지요...